

거상거상 걸어가는 모양
글 차연서

[거상거상 거상거]는 정원에서 내게 온 의성어이다. 작업을 시작하며, 처음 된 것은 '상'이라는 외 글자 단어였다. '모양'이나 '본뜬다'는 뜻을 가진 象(코끼리 상)이다.

작업을 갓 시작했을 때는 늦은 봄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선하고도 발그스름한 날씨에서 남양주 정원과 대면했고 그 속에서 산들바람 같은 기분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다. 루틴은 이렇다. 아침 일찍 간다. 대문은 닫고, 현관문과 뒷문은 모두 연다. 처음엔 여기까지만 열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창틀을 청소한 이후부터는 커튼도 열고 창문도 연다. 제습을 위해 에어컨도 켜다. 집중하는 동안 휘휘 정원을 돌아다닐 흰 개의 네 다리에 방충용 옷을 끼워 입혀주고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약 3시간 정도를 한 타임이라고 했을 때, 한 타임만 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도 하고, 두 타임을 할 경우에는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간다. 하루를 더 해야 할 때는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고, 그건 점차 2박 3일, 3박 4일까지도 늘어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문을 다 닫는다. 해가 지고 나서 현관문이나 뒷문을 열 때는 실내를 소등한다. 커다란 날벌레가 뛰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불도 끄면 이 집은 정말 까매진다. 어둠 속에서 산책하거나 담배를 피우려면 후레쉬를 켜다. 밤마다 연못으로 내려오는 산짐승들이 있다. 멧돼지 소리는 꼭 호랑이 소리 같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불쑥 그르렁거리는 캄캄한 소리를 듣는다. 내게 몸 같은 게 없었더라면, 밤마다 어둠 속에 숨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더 가까이 더 자주 들었을 것이다. 지하실에는 물이 떨어진다. 폭우가 오는 날에는 칼칼 쏟아진다. 지하실 가장 깊은 천장에는 낙엽처럼 매달린 박쥐가 잠들어있다.

'6월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풀쭈을 설설 기는 뱀 없이는 소스라치게 아름다워지지 않는다.'¹ 내가 집중하는 동안 홀로 허물허물 걸어 다니는 눈먼 개가 불현듯 매에 채여갈까봐, 뱀에 물릴까 봐, 벌에 쏘일까 봐, 멧돼지에 발힐까 봐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시구를 떠올린다. 개는 정원 구석구석을 더듬어 탐험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작업하고 있는 위치로 정확히 찾아오고, 다시 집에 들어가 그늘 아래,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잠든다. 연못을 지나갈 때는 유심히 응시한다.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백로, 붓고 큰 부리로 신의 소리를 내는 호반새가 자주 날아오기 때문이다. 작업은 여름 내내 이어졌다. 대부분 야외 작업이었기 때문에 날은 점점 뜨거워졌고 농사를 짓는 시간과 같은 이른 시간으로 남양주에 오갔다. 모기약이 찝찝하게 땀에 섞인 몸을 리부팅하기 위해서 계속 샤워를 한다. 그동안은 거기서 샤워를 한 적이 전연 없었던 것 같다. 벌레 많은 집에서 살갗을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 타임을 마치면 땀과 열기로 젖은 몸을 돌보기 위해 물 샤워를 한다. 매번 새롭게 개운하다. 작업을 하면 할수록, 집도 나와 같이 씻는다.

이번 전시에 글을 부탁한 재훈과 N/A의 대표 오진혁을 남양주 작업실에 초대해서 정원을 보여준 날이 있었다. 서울에서 먼저 스튜디오 비자를 한 후 그들을 차에 태우고 남양주로 이동하니 해가 다 저 있었고, 모처럼 무리 지어 돌아다닐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신이 났다. 후레쉬 불빛을 켜면 나무가 나타나고, 탑이 나타나고, 대파꽃이 나타났다. 두 사람에게 작업하고 있는 곳곳의 장소들을 하나하나 도슨트 하듯이 짚어 안내해 주었다. 둘 다 내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 재까 남양주의 세계는 자정 가까이에 서울로 돌아와 나를 온통 두들겼다. 온 몸을 감싸고 고치처럼 누워있을 수 밖에 없었다. 통증 속에서 잠드는 중에 마치 안개가 낀 듯이 새파란 창문 너머로 소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장면을 보았다. 내가 이번에 작업하는 나무는 그중 가장 작은 나무, 현관문 바로 앞에서 입구를 점차 가려가고 있는 - 그래서 풍수적으로 불길하고 불운하여 옮겨야 한다고 매번 지적을 받는 꼬맹이 나무이지만 남양주에는 더 큰 소나무들도 아주 많다. 그들이 성큼성큼 건물건들 걸어갔다. 뿌리를 뽑아 발가락처럼 딛고 걸었던 것인지 그 아래는 창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상' 작업파일을 켜고 '거상거상거상거' 이렇게 적었다. 그게 나무들을 포함하여 모든 정원의 기물들이 밤마다 걸어 다니는 소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곧 알았다. 'ㄱ'와'ㅏ', 즉, 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또한 알았다.

¹ 김언희, 호랑말코 (호랑말코 , 문학과지성사, 2024)

내게 나타난 이 의성어 혹은 의태어를 제목으로 삼으려, 한문으로 음차를 붙이고 ('居喪居喪居喪居')영문으로도 번역하는 작업을 거쳤다. 리듬을 주기 위해 4.3조로 띄워 거상거상 거상거 로 한글 제목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나의 엄마, 조수석에 앉아 있던 영미시 연구자 손나리 님이 비슷한 리듬의 시가 떠오른다면 앨런 긴즈버그의 'Hum Bomb'을 알려주셨다. 나는 시를 읽어보고 무척 반가웠고 이것 또한 음·양의 소리를 반복할 수 있도록 — Hum Bomb, Hum Bomb, Hum Bomb Hum 으로 정리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시는 누가 누구를 터뜨렸는지(폭격했는지) 말하는 반복적인 리듬으로 진행된다. 'Whom bomb?'하고 물으면 '우리가 그들을 터뜨렸지!', '우리가 널 터뜨렸지!', '너가 너를 터뜨렸지!(You bomb you!)' 하는 질답이 건들건들 이어진다. 이 시는 폭탄, 폭격의 사건을 둘러싼 말들을 변주하며, 인터넷에서 시인의 낭독 녹음을 여러 버전으로 찾아 들을 수 있다.²

이번에 전시에 함께 놓으려는 텍스트 무서워하는 까마귀-아이 (2025)는 SeMA 동화 비평 모임³에서 쓴 글이다. 야시마 타로의 동화 까마귀 소년 과 수평선이 부른다(Horizon is Calling) 를 나의 '축제' 시리즈와 함께 읽었던 기록이다.

2021년 여름의 기록을 보면 꼬맹이 나무는 올해인 2025년 지금에 비해 단정하고 자그마하다. 올봄은 그때 이후로 처음 맞는 봄과 같다. 정원의 모든 미물이 자신의 성기를 바깥으로 솟아내고 발기해 있는 봄. 꼬맹이 소나무의 노오랑고 붉그스름한 성기 다발이 새순으로 올라와 노출증자처럼 솟았다. 여름이 되자 금세 새파래져서는 끝마다 보라색 암꽃이 달리고, 그 아래로는 주황색 수꽃이 차례로 피고 지었다. 근친 수정을 피하고자 각각은 시차를 두고 맺힌다고 한다. 아빠를 수습하러 가던 날, 그러니까 아빠가 남긴 몸과 물건들을 찾으러 가던 그 새벽에 정원은 안개가 자욱했다. 모든 것이 파르스름하고 허이영게 보였고, 그건 내게 정원이 처음으로 아름다웠던 순간이다. 꿈속에서 본 새파란 안개가 어찌면 그때와 비슷한가?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기억을 소화하는 종류의 꿈과는 다르다. 불안개는 정원을 이루는 정령들의 가장 진실한 기운으로서, 어느 날의 불연 듯한 죽음과 꿈을 통해 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² "Allen Ginsberg - Hum Bomb". 내가 들은 것은 Allen Ginsberg, Torino, Italy, January 24th 1992 버전이다.

³ 그림책 비평 모임: '알아차림'의 읽기와 쓰기. 진행자: 한윤아,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2025.2.6~2.27.